

우수사업 부문 '최우수상'

장수군,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수상 500만원 역량강화사업비·2022년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장수군이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우수사업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이번 수상으로 역량강화사업비 500만원과 2022년도 공모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됐다.



7일 군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장수군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장수군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이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사업 중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 로컬 job센터 구축사업은 군과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센터가 함께 경력단절여성 및 취약계층에 사회적응기회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장수군 로컬 job센터는 ▲취업수미업마생각잡치 기업에 여성, 고령인 28

명 취업 ▲취업수미업마생각잡치 제품 제조회사 5명 취업 ▲조선문화연구원 가야문화재 발굴 전문 교육수료 후 70대 3명 취업 ▲장수군 치매센터 노인지 훈련강사 심화과정을 통한 자격취득자 7명 취업 등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제고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쳤다는 평이다. 또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조선문화연구원 가야문화재 발굴 전문 교육수료자 70대 3명 취업, ▲노인지 훈련강사 심화과정을 통한 자격취득자 7명 장수군 치매센터 취업 등 취업성과가 높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통한 취업 알선, 기업 맞춤형 소규모 채용행사를 통한 구인구직난 해소, 장수군·산업체·군민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일자리 관련 업무 일원화 기회와 지원을 연계 수행하는 등 사업을 수행해 호평을 받았다. 장영수 군수는 "군의 지역과 산업특성을 고려한 일자리 발굴과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산학기관과 협력해 지역 산업구조와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7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이 장수군에 직접 방문해 전달했으며, 2021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은 고용노동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226)를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한 해 동안 추진한 일자리사업 실적에 평가, 우수자단체를 격려하고 지역일자리창출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장수=관훈 기자

진안군수, 폭우 속 현장점검

장마철 맞아 재해위험지구 철저한 대비·빠른 대응

전춘성 진안군수는 지난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재해위험지구를 현장 점검하고, 철저한 대비 및 빠른 대응에 나섰다. 전 군수는 부귀 황금지구 1개소와 동향면 2,3지구 급경사지정비사업장 2개소 등을 찾아 ▲우기대비 주요공정 완료여부 ▲안전조치 시행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빈번히 발생하는 ▲사면유실 낙석 등의 급경사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시작한 비가 7일 아침까지 140mm의 강수량을 기록해 토사유출, 도로침수 등 일부 피해가 있었으나 조속한 응급복구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 빠

르게 조치했다. 특히 재난안전대책본부 24시간 상황 관리 체계로 유지하고 있으며, 급경사지, 산사태위험지역, 인명피해 우려지역, 공사장 등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재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예찰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조치와 주민사전대피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현장점검에서 "국지성 호우가 빈번한 만큼 주요 사업장은 배수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절토면 피복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한 사전 대응을 통해 토사의 붕괴와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장마철 호우대비 피해 최소화 총력

장수군이 7일 오전 기준 도내 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농가와 시설물, 인명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1단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폭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장수군에는 지난 5일부터 7일 오전 8시까지 65mm의 많은비가 쏟아졌다. 이에 장수군은 안전재난과장을 본부장으로 호우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해 피해 예방과 응급 복구에 대비했다.

군은 인명피해우려지역 및 재난취약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를 통한 비, 파수 등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관리 점검, 안전재난문

자 발송을 통한 군민 행동 요령 및 대피 등을 안내하며 피해 예방에 힘 쏟고 있다.

현재까지 장수군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 접수 건은 없으나, 피해 발생 시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하여 응급복구 펼칠 예정이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은 "강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바, 마을방송과 재난문자를 수시로 안내하고 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도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해 마을방송과 안내문자를 확인해 대응해주시고 되도록 외출 및 농사일을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관훈 기자

올해는 무주서 반딧불이 볼 수 있다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 개최 결정

무주군이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명예문화관광축제) 개최를 결정했다. 개최일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자연·향토자원을 대표하는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무주군이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명예문화관광축제) 개최를 결정했다. 개최일은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로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자연·향토자원을 대표하는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계획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취소가 된다면 무주군의 자부심이자 청정지역 이미지를 키워 온 반딧불축제가 국민의 관심 속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 개최를 결정하게 됐다"며 "참여 인원을 대폭 축소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반딧불축제를 기다려온 방문객들에게는 만족을 경제체제로 어려워진

지역에는 숨을 불어넣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전했다. 제25회 무주반딧불축제(주최 무주군 / 주관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회)는 "반디의 꿈, 산골생태도시 무주 이야기"를 주제로 무주군 반딧불이 서식지와 남대천 태권도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2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진안군은 7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6월말 기준 민선 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5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에 대해 올해 2분기 동안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공약이행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을 초점을 맞춰 보고가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공약이행률은 전분기 대비 7.6% 향상된 66.2%를 달성했고, 2분기에 완료된 공약은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운영' 1건으로,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7일 발대식을 갖고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이 시작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진안정책위원회는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2040 중장기 및 미래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이행후 계속적인 추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영농철 맞아 농기계 임대 운영

무주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일손부족이 심한 농가들의 경우 농기계 반값 임대는 큰 경제적 효과와 적기 영농을 할 수 있어 농가들로부터 효과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분소와 무풍·안성분소 등 3개소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반값으로 농가들에게 농기계를 임대해주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모두 2,008대의 농기계를 빌려줬다.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경제적 절감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농가 농기계 반값 임대는 황인홍 군수의 민선7기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2분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진안군은 7일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국·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6월말 기준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5개 분야, 33개 공약사업에 대해 올해 2분기 동안 공약실천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공약이행 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계획에 초점을 맞춰 보고가 이뤄졌다.

점검 결과 공약이행률은 전분기 대비 7.6% 향상된 66.2%를 달성했고, 2분기에 완료된 공약은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운영' 1건으로, 진안군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7일 발대식을 갖

고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이 시작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열린진안정책위원회는 하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2040 중장기 및 미래비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상황과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과소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 이행후 계속적인 추진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추진 사업은 지난 분기 대비 2건이 줄어든 14건으로 정상추진으로 분류했던 열린진안정책위원회 운영 사업이 완료된 청년 주거비용 지원사업이 일부 추진 사업으로 분류되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진안=우태만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